

영암에 무료 도서관 '하늘책 사랑방' 운영하는 김선희씨

# 사비 털어 '열린 책방' 여니 시골아이들 독서광 됐어요

“노릇처럼 생긴 이상한 소포를 풀어본 할머니는 ‘깍’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생일선물로 뽕을 보냈거든요.”

지난 1일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하늘책 사랑방'.

10여 명의 아이들이 김선희(여·44)씨가 읽어주는 동화책 '크리터'의 내용을 한 토막

## 논술학원 접고 독서 지도

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쫓긋 세웠다. 책을 읽어주던 김씨가 '깍' 하고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흉내 내자, 아이들의 눈도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됐다.

'하늘책 사랑방'의 단골 고객인 박삼민(11)군은 "도서관이 없을 때는 하루종일 놀

기만 했는데, 요즘은 책 읽는 게 유일한 취미"라면서 "독서에 빠진 뒤론 성적도 8등에서 3등으로 올랐다"고 자랑했다.

'하늘책 사랑방'은 김씨가 사비를 털어 2년째 운영중인 무료 도서관이다.

경기도 수원이 고향인 김씨는 지난 2005년 전남도개발공사에 취직한 남편 이현웅(47)씨를 따라 영암으로 이사를 온 뒤 무료 도서관을 열었다.

수원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했던 김씨는 2006년 초 영암 군서면에 논술학원을 다시 열었지만, 도시 아이들보다 뒤떨어진 독서 능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도서관 운영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논술은 독서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책 읽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

았다"면서 "이에 학원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 영어회화·중국어 강좌 운영도

2006년 10월 12명 규모의 무료 도서관을 개관한 김씨는 책 1천 권을 기증했고,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책 기증을 호소한 끝에 현재 3천여 권의 책을 확보했다.

하늘책 사랑방을 찾는 학생 수도 점점 늘어 요즘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까지 하루 50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다.

올해 초엔 하늘책 사랑방 바로 옆에 12평 짜리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해 어린이실과 청소년실로 분리해 사용중이다.

하늘책 사랑방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니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무료 도서관 '하늘책 사랑방'에서 14일 도서관 운영자인 김선희씨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매주 화·수·목요일에는 무료 영어회화를, 목요일 밤에는 중국어 강좌 등을 운영중이다. 김씨는 앞으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등도 마련할 생각이다.

## 운영비 빠듯... 후원자 찾아

개관 2년째를 맞이한 요즘, 김씨에겐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 하나 생겼다. 도서관 책 대부분이 낡고 오래된 데다, 어린이도 서보다는 성인도서가 많기 때문이다.

1년 전부터 김씨 남편의 직장동료 30명이 후원자로 나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34만원)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도

부족하다. 김씨는 "주부 혼자 힘으로 시간 서적을 구입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시골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원해 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책 사랑방(061-473-0057, 010-7511-0342).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원침 (7584)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책꽂이 및 상담관영

# 여수 거문도 생태계 교란 주범 들고양이를 잡아라

## 영산강환경정, 포획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음달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여수 거문도의 생태계 교란 주범인 야생 들고양이 포획에 나선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야생 들고양이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수 거문도 변촌마을 등 5개 마을에서 78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고양이는 애완용으로 키워진 집 고양이가 버려지면서 방치되는 바람에 짧은 임신기간(2달)과 왕성한 번식력(3~6마리)으로 도시는 물론 농어촌, 공원지역 등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문도의 경우 도서지역 특성상 생선과 견어물 등 먹음거리가 풍부해 어획물 등의 훼손이 잇따르고 있으며, 쓰레기통 주변의 먹이를 찾는 습성 탓에 관광객들에게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들고양이는 천적이 될 만한 동물이 없는데다 다람쥐, 멧토끼

등 소형 포유류나 조류 등을 포식하면서 야생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번역력이 약한 야생동물에게 질병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문도 들고양이 포획협의회'를 개최하고 포획방법과 처리방 등을 논의한 후 9월부터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

거문도에는 매와 흑비둘기, 팔색조, 수달, 박달목서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해 자연자원의 보고로 꼽히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식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공단측은 북한산 등 5개 공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281마리의 들고양이를 포획해 개체수가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둬 따라 포획사업을 모든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람쥐와 조류 등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1천400여마리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공군 폭발물처리반 대원들이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중심천에서 발견된 대형 포탄을 해체한 뒤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나원침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도심에 대형 포탄... 주민 대피 소동

## 중심천 공사장서 무게 230kg짜리 발견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포탄이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중심천에서 수송차 매설공

사를 하던 굴삭기 기사 김모(30)씨가 하천 바닥에 서 대형 포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포탄은 길이 120cm, 지름 40cm로 무게만 230kg에 달하며, 외관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

공군 폭발물처리반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인

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1시간여에 걸친 작업 끝에 포탄을 안전하게 해체했다.

경찰과 군당국은 이 포탄이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에 의해 투하된 포탄으로 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완도해역 적조 경보

### 남해안 피해 확산

지난달 25일 여수해역에서 처음 발생한 적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완도 약산면 독암리에서 금당면 금당도 동쪽 해역의 적조생물 밀도가 m<sup>2</sup>당 300~960셀

(cell·개체)로 높아짐에 따라 적조주의보를 경보로 대체했다.

이날 현재 완도해역과 경남 남해군 삼주면~통영시 수우도 동쪽 해역에 적조경보가, 완도군 금당도~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역, 여수시 화정면~경남 남해군 삼주면 해역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결별 거부' 남친 흥기 살해

### 여수경찰, 20대女 붙잡아

여수경찰은 15일 헤어질 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남친친구 흥기로 찢러 살해한 오모(여·24)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4일 밤 11시50분께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남친친구 A(26)씨의 배

를 흥기로 찢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A씨와 두 달 동안 사귀어 오다 최근 헤어지자고 말했으나 A씨가 결별을 거부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감시하고 담을 넘어 집에 몰래 들어오는 등 집착을 보이던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박진표기자 ykpark@

## 광주·전남 주말·휴일 최고 60mm 비

### 일부지역 천둥·번개 동반

주말과 휴일인 16~17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지역이 20~60mm. 그 밖에 지역은 10~40mm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기습폭우가 내릴

일요일인 17일에도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8~29도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다른 남자 만난다" 이혼 전처 폭행

### 광산경찰, 30대 구속영장

광주광산경찰은 15일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흥기를 휘두른 박모(38)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항동 H식당 앞 골목길에서 출근 중이던 전처인 심모(여·34)씨에게 흥기를 휘

둘러 삼체를 일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박씨를 위협하는 등 집착을 보이던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박씨를 붙잡았다. /강필상기자 kps@

## 장성 재활용공장에서 40대男 감전사

15일 오전 9시45분께 장성군 북일면의 한 재활용공장 작업장에서 강모(48)씨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것을 김모(18)군이 보고 119로 신고했다. 강씨는 장성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분쇄기 갈판을 교체하던 강씨가 기계에 연결된 전선을 잡더니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이르면 내주께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부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행정 13부는 18일 오후 2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오토바이·차량이어 자전거 날치기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한 신종(?) 날치기 범죄가 등장.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15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M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남모(여·20)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는 것.

○자전거 날치기범은 남씨의 손가방을 빼앗은 뒤 힘껏 페달을 굴려 서구 삼무지구 방향으로 달아났는데, 노력(?)에 비해 얻어진 수확은 현금 8천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꼴"이라며 "자전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미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비 내리는 주말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8월 16일 (음 7월 16일) 전국날씨

광주	24~30°C
전남	24~29°C
전북	24~29°C
충청	24~29°C
경상	24~30°C
강원	24~29°C
서울	23~29°C
대전	23~29°C
대구	23~29°C
부산	23~30°C
제주	23~28°C

▲해일 05:53 ▲해진 19:20 ▲달출 19:00 ▲달진 04:54

날씨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28	24/30	25/32	25/32	25/30	24/30